

송윤아·전소민 “막장이 어때서?”



송윤아

가장 지키려는 송윤아와 뺏으려는 전소민 빠르게 몰아치는 스토리 전개로 몰입도 업 송윤아 “정말 현실적... 공감 많이 하실것” 전소민 “화려한 내연녀 고정관념 깨고싶어”



배우 송윤아(48)와 전소민(35)이 '격돌'한다. 29일 밤 10시30분 첫 방송하는 채널A 새 월화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쇼윈도)이 그 무대이다. 송윤아는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전소민은 금기된 사랑에 집착하며 송윤아의 자리를 노린다. 의자매를 맺을 만큼 정다웠던 이들이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속고 속인다. 치열한 싸움은 극중 송윤아의 남편 이성재와 전소민의 불륜으로 시작된다. 빠르게 몰아치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파격적인 스킨십 장면도 얹어진다. 자칫 '막장'으로도 비칠 수 있을 치정 멜로드라마이다. 23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 DDMC에서 만난 송윤아와 전소민은 정작 '막장이 어때서?'라면서 여유와 자신감을 한껏 드러냈다.



전소민

●송윤아 “현실과 허구의 줄타기”

극중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한선주를 연기하는 송윤아는 “같은 치정 멜로라도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혹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죠. ‘쇼윈도’는 그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줄을 타는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와 ‘정말 현실적인데?’를 번갈아 외치실 거예요.”

9월 종영한 SBS ‘펜트하우스’처럼 치정이나 불륜 요소를 담은 ‘막장 드라마’로 비치더라도 “하나의 장르”가 됐음을 강조했다.

“주변에서 드라마에 대해 물으면 ‘막장 드라마야!’라고 대답해요. 그럼 ‘재미있겠네!’라는 반응이 와요. 하하! 사실 드라마는 실제 우리네 삶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현실에선 더한 일이 많고, 따지고 보면 막장 아닌 드라마는 없죠.”

1997년 SBS ‘지평선 너머’ 이후 24년 만에 만난 이

성재는 든든한 ‘버림목’이다.

“2014년 MBC ‘마마’부터 매년 드라마를 해왔는데, 광고톱게도 모두 진중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인지 현장에서는 오히려 까불거리게 돼요. 이번엔 (이)성재 오빠와 다시 만나 정말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어요. 편하게 대해줘 친오빠 같아요.”

●전소민 “내연녀 고정관념 깨다”

극중 이성재와 불륜에 빠진 미술학원 강사 윤미라를 연기하는 전소민은 “평소의 발랄한 이미지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대부분 내연녀 역할을 두고 떠돌이는 섹시하고 화려한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면모를 부각시켰어요. 한 인물 안에 다양한 욕망이 숨겨져 있어 ‘1인 다역’을 하는 느낌마저 들어요. 이번 드라마로 다채로운 이미지를 얻고, 앞으로 새 도전을 계속 펼치고 싶어요.”

시청자 반응은 벌써 폭발적이다. 이성재와 펼친 베드신 일부가 예고영상으로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전소민은 “더 껌뻑 놀라게 해주고 싶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연기자로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쇼윈도’가 더욱 기대가 돼요. (유)재석, (지)석진 오빠 등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멤버들도 ‘네가?’라면서 엄청 껌뻑 놀라더라고요. 내심 뿌듯했어요.”

동료 황찬성으로부터는 “카메라 앞에서는 ‘윤미라 그 자체’라는 극찬을 듣지만, “실제와 정반대”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안정적인 사랑을 추구해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캐릭터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결핍에 집중하며 연기하고 있어요. 제작진이 절 ‘선택’해준 데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예리, 브레이크 댄스 아시안게임 출전



화제의 댄스경연 프로그램인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YGX의 크루 안무가 예리(사진)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내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예리는 27일 대한민국의 스포츠연맹(KFD)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 타워에서 주최한 ‘브레이크 K 파이널 대회’의 비결(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여성) 부문에서 우승했다. 브레이크 댄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대회는 이를 앞두고 한국 최초의 브레이크 댄스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무대였다. 예리는 SNS를 통해 “이제 진짜 국가대표가 됐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 세계 최대

그들 블랙핑크(사진)가 전 세계 최대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확보해 글로벌 스타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8일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이날 오전 7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아티스트 최다 기록이다. 또 7000만명을 넘긴 것 역시 처음이다. 2016년 6월28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5년 5개월 만이다. 또 모두 32편의 유튜브 역대 조회수 영상을 보유한 가수가 됐다. 누적 조회수는 213억회에 달한다. 특히 2018년 발표한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는 모두 17억뷰를 넘어서 케이(K)팝 그룹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세원 사생활 논란 이어 윤결 폭행 입건

주말 사이 두 명의 남성 연예인이 구설에 올랐다. 연기자 고세원은 최근 “임신한 뒤 버려져 유산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의 온라인상 글로 의혹을 샀다. 이에 그는 “2017년 이혼한 뒤 지난해 연말 그 여성을 만났고, 3개월 정도 교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그들 지나비 출신 윤결은 최근 지인의 결혼식 파티 연에서 한 여성의 뒤통수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윤결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윤결은 SNS를 통해 사과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요한·김선영,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연기자상

영화 ‘자산어보’의 변요한과 ‘세자매’의 김선영이 부산영화평론가협회로부터 남녀 연기자상을 받는다. 부산영화평론가협회는 12월11일 부산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여는 제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부산영평상) 시상식을 앞두고 각 부문별 수상자(작)를 발표했다. 대상은 홍의정 감독의 ‘소리도 없이’가 차지했다. 홍 감독은 각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또 ‘에듀케이션’의 김준형·‘최선의 삶’의 방민아가 신인 남녀 연기자상을 품에 안는다. 신인감독상은 ‘총착역’의 권민표·서한솔 감독이 수상한다.

설현·차은우·로운 ‘KBS 가요대축제’ MC

가수 겸 연기자 설현을 비롯해 차은우와 로운이 ‘2021 KBS 가요대축제’의 MC로 나선다. 이들은 12월17일 오후 8시30분부터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KBS 2TV ‘2021 KBS 가요대축제’를 진행한다. 특히 그룹 아스트의 차은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회자가 돼 눈길을 끈다. 그들 AOA의 멤버로 데뷔해 연기자로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설현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KBS 가요대축제’에 나서게 됐다. 로운은 그룹 SF9 멤버로 현재 방송 중인 화제작 KBS 2TV ‘연모’의 주연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열도 삼킨 ‘K드라마’... 넷플릭스 톱10 중 8개 점령

‘지옥’ 가장 많이 본 TV쇼 1위 질주 ‘연모’ ‘오겜’ ‘진심이...’ 등 뒤이어 과거 드라마도 톱10 올라 위력 입증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앞서 ‘오징어 게임’이 불붙인 ‘케이’ 콘텐츠의 세계적 열기를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일본 열도도 ‘지옥’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현지에서 공개돼 인기를 모았던 한국드라마도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28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랭킹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를 집계해 보면 ‘지옥’이 27일 기준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무려 7편의 한국 드라마가 톱10에 들었다. 특히 과거 드라마까지 순위가 오르며 한국드라마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지옥’과 함께 순위를 쫓는 드라마는 KBS 2TV ‘연모’를 비롯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tvN ‘진심이 닿다’로, 2~4위를 잇따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한류 열기를 재점화한 tvN ‘사랑의 불시착’과 JTBC ‘이태원 클라쓰’가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했다. 8위는 현재 방영 중인 JTBC ‘너를 닮은 사람’이며, SBS ‘초면에 사랑합니다’가 10위에 안착했다. 이 가운데 ‘진심이 닿다’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초면에 사랑합니다’는 2019년과 지난해 국내외에 선보인 드라마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같은 한국 콘텐츠의 힘은 차태현·전지현의 2001년 주연 영화 ‘열기적인 그녀’의 미국 리메이크작인 ‘마이 세시 걸(My Sassy Girl)’까지 6위에 올려놓았다. 일본 넷플릭스 플랫폼의 ‘가장 많이 본 TV쇼’ 톱10 작품이 한국드라마이거나 관련 작품

이어서 ‘케이(K) 콘텐츠’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사랑의 불시착’ 이후 달아오른 현지 열기가 최근 정점에 달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오징어게임’이 이끌어낸 한국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궤를 같이 한다. 전 세계 190개국을 연결한 OTT 유통망을 타고 ‘오징어게임’과 ‘지옥’ 등이 신드롬급 열기를 자아내며 일본까지 강타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 출판사 자우국민사는 매년 10개의 단어를 뽑아 일본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해온 ‘2021 유엔 신어·유행어’ 대상 30개 후보를 선정하며 ‘오징어게임’을 포함시켰다. 또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지옥’이 “오징어게임, 그 이상이다”면서 “앞으로 수십년 동안 회자될 예외적인 드라마”라고 호평했다.

윤여구 기자 tadada@donga.com

‘감독 유망주’들과 호흡 맞추는 스타들

김서형·한선화·안내상·권유리 한국영화아카데미 신작에 출연

김해연, 윤유선 등 중견 배우들과 이설, 한재아 등 다수의 젊은 연기자들도 참여한다. 올해 말까지 모두 8편의 작품에서 각각 연기를 펼친다. 뒤이어 후반작업과 영화제 출품 등을 거쳐 2023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기자 김서형과 한선화, 안내상과 권유리가 미래의 한국영화 주역들과 손을 잡는다.

28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장편영화를 제작·개봉하는 장편 과정 전공자들의 연출작에 출연한다.

김서형은 이설희 연출 ‘비밀하우스’, 안내상과 윤유선은 서정원 연출 ‘검은소년’, 한선화와 한재아는 김민주 연출 ‘교토에서 온 편지’에 각각 주연으로 나선다. 또 권유리와 김해연은 배두리 연출 ‘돌판’에, 이설

은 곡은미 연출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각각 출연한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이와 함께 ‘만분의 일초’(김성환), ‘모르는 이야기’(양근영), ‘지옥만세’(임오정) 등 모두 8편을 제작한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84년 설립한 영화전문 교육기관이다. 30명 안팎의 소수 정예 인원이 영화연출, 장편,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정규 과정에서 각각 공부하고 있다.

봉준호·허진호·조성희 감독 등을 배출했고, ‘파수꾼’의 윤성현·‘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안국진·‘소셜포비아’의 홍서재

‘야구소년’의 최윤태·‘죄 많은 소녀’의 김의석 감독 등도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이다. 앞서 이제 충무로의 주역으로 떠오른 배우들이 이들과 함께했다. 이재훈과 박정민(파수꾼)·변요한과 류준열(소셜포비아), 전여빈(죄 많은 소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그만큼 재능 있는 연출자들과 배우들을 스크린에 내보내왔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새로운 연출자들과 대중적 명성을 지닌 연기자들이 이번 신규 작품을 통해 의기투합해 더욱 눈길을 끈다.

윤여구 기자 tadada@donga.com